

‘끝없는 추락’ 카뱅, 주가 반토막에 시총 12위→25위로 뚝

인터넷은행 규제에 한계론 대두
2분기 실적둔화에 배당도 없어
주가 최고가 대비 72.7% 급락

BNK證, 상장 당시 리포트 재평가
“기대감 선반영, 필요이상 고평가”

한때 금융대장주에 올랐던 카카오뱅크의 주가가 공모가 대비 반토막 났다. 기존 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성장성과 낮은 수익성때문에 당분간 주가 반등이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 카카오뱅크, 시총 12위 → 25위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뱅크는 전 거래일 대비 200원(0.79%) 하락한 2만505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상장 당시 공모가(3만9000원) 대비 35.7%, 최고가를 기록한 지난해 8월19일(9만2000원) 대비 72.7% 급락했다.

카카오뱅크는 상장 직후 기존 4대 금융지주사(KB·신한·하나·우리)를 제치고 은행 업종에서 압도적인 시가총액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KB증권 종로지점을 찾은 시민들이 카카오뱅크 일반 공모 청약 관련 투자 상담을 받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위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당시 코스피 시총 12위까지 올랐으나, 현재 25위로 내려앉은 상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도 카카오뱅크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윤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90억3000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3년 연속 순이익 흑자폭을 확대해갔다. 그러나 늘어나는

순이익과는 반대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뚜렷한 주주환원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 없어 배당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2분기 실적둔화와 관련해 정부 규제 등에 부딪혀 인터넷은행 성장성 한계론이 대두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2분기 당기순이익은 5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감소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

오뱅크가 다른 은행주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은 은행주보다 금융 플랫폼 관련주로서의 정체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며 “대출 성장이나 플랫폼 수익의 뚜렷한 증가나 차별화된 월간 이용자수(MAU)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BNK證, 카카오뱅크 ‘매도’ 리포트 재평가

카카오뱅크 상장 당시 투자 의견 ‘매도’와 목표주가 2만4000원을 제시했던 BNK투자증권의 리포트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당시 BNK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의 일반 청약이 시작된 날 해당 리포트를 내놨다.

국내 증권사에서 ‘매도’ 의견을 제시하는 리포트를 찾아보기 어렵다. 통상 기업과 증권사는 갑을 관계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증권사 리포트의 분석 대상이면서도 증권사에 대출, 주식 및 채권 발행 등을 맡기는 고객이다. ‘매도’ 의견의 리포트가 발간되면 해당 기업이 기업 탐방 등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당시 BNK투자증권의 카카오뱅크 리포트가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사자 금융정보 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서 해당 리포트가 삭제되는 등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리포트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향후 공격적인 성공 가정을 감안해도 상장 은행 규모 수준의 비이차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장외가 34조원은 어이 없는 수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힘든 비교기업 선정” “개인투자자의 공모주 청약 자체” 등 단호한 견해를 드러냈다.

김인 연구원은 “기대감이 선반영돼 필요 이상으로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됐다”며 “결과적으로 당시의 분석 내용 자체가 많이 틀린 건 아니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회고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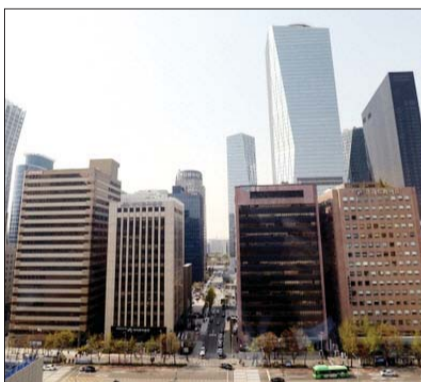
증권업계, 하반기 채용문 좁아진다

금리인상 등 업황 불확실성에
10대 증권사 중 절반만 채용 예상

증권사들이 하반기 공채시즌을 맞아 신입 채용에 나선다. 그러나 금리 인상기 속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증권사에서만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시채용의 확대까지 더해지면 서 공개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 중 절반에서만 하반기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통해 70여명을 선발한다. 오는 29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직무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PB(프라이빗뱅크), 본사영업, 리서치, 본사/리스크관리, 정보기술/디지털 등에 걸쳐 모집한다. 또한 올해에도 최고경영자(CEO)와 오너가 직접 대학가를 방문해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지난 14일, 19일에 강연을 진행했으며, 이날과 22일 진행되는 설명회에는 김남구 한국투자금융그룹 회장이 나선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뉴시스

삼성증권도 삼성계열사들과 함께 하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채용영업, 디지털, IB, 리서치 등 직군에서 모집하며 지난 14일까지 서류접수를 마감하고, 이달 중 적무적합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보증권과 키움증권 역시 역시 이달부터 하반기 신입 공개채용 일정을 진행한다. 교보증권은 오는 22일까지 대졸 신입사원(5급) 공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을 통해 영업력 강화를 위한 우수 인재 확보하겠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키움증권은 다음달 3일까지 지원접수를 받으며, 실무진 면접, 경영진 면접

을 통해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채용을 통해 키움증권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 회사의 핵심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며 “키움증권과 함께 성장할 지원자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은 역시 하반기 중으로 대졸 공채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인원, 부문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전했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진행한 해외대 신입사원 채용과 더불어 연내 대졸 공채를 진행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30여명에 달하는 인원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등은 대규모 공개채용 대신에 수시채용으로 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업계 내에서 채용 트렌드가 직무 중심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디지털, ICT 직군 등 수요가 많은 부문에 대한 수시채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아토피 등 항염증 혁신 치료제 개발 나노바디 기술로 기존치료 단점 극복

IPD 간담회

사페론

나노바디 기술적용 플랫폼 기반
높은 안정성, 다양한 구조 설계
기존 치료제 10분의 1로 경량화

면역 혁신신약개발 바이오기업 사페론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21일 사페론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성장 계획과 비전에 대해 밝혔다.

사페론은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성승용 공동 대표가 지난 2004년 네이처 리뷰 면역학(Nature Reviews Immunology)에 발표한 세계 최초 염증 개시 이론인 DAMPs(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rtners) 이론을 바탕으로 2008년 10월 설립됐다.

혁신적 면역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며, 독자적인 염증복합체 억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아토피, 알츠하이머 치매, 특발성 폐섬유증, 코로나19와 같은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혁신 항염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또 차세대 신약기술로 주목받는 나노바디(Nanobody)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나노바디-이중항체 면역항암제(Papiliximab)와 나노바디-mRNA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주요 파이프라인은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인 아토피 치료제 ▲전임상을 완료하고 국전약품에 기술이전을 완료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전임상을 완료하고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에 글로벌 기술 이전을 완료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국가신약개발재단으로부터 91억원의 임상 개발비를 지원



21일 성승용 사페론 공동대표가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받아 다국가 2b/3상을 진행 중인 코로나19 폐렴 치료제 등이 있다.

또 사페론은 기존 항체 치료제를 10분의 1로 경량화해 기존 항체 치료제의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나노바디 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면역항암제를 개발 중이다.

나노바디 기술은 높은 안정성에 기반한 다양한 투여 경로를 가지며, 작은 크기와 안정된 구조의 ‘모듈’로 다양한 타겟과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성승용 사페론 공동대표는 “상장 후 선도 바이오 기업과의 기술 이전, 글로벌 리딩 제약사들과의 공동 연구, 효과와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킨 차세대 염증복합체 억제제 개발 등을 통해 염증 질환 치료제 분야를 선도하는 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페론의 총 공모주식수는 274만 7000주이며, 희망 공모가 밴드는 8200원~1만2000원이다. 오는 9월 29일~30일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10월 6일~7일 일반청약을 거친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10월 중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구주 매출 없이 공모주를 전량 신주로 발행한다. /박미경 기자

NH투자증권, 美 밸류라인과 손잡고 현지 중개서비스 강화

글로벌 투자 플랫폼 확장 첫 사례
전문화·현지화된 리서치 서비스

NH투자증권이 미국 현지투자 리서치 전문회사인 밸류라인(Value Line)과 독점적 사업 협약을 맺는 등 미국 주식 중개서비스를 강화한다.

21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정영채 사장은 지난 18일 미국과 영국으로 6일

간의 출장길에 올랐으며, 20일 미국 뉴욕에서 밸류라인과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뉴욕 밸류라인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이사, 김홍욱 Global사업본부장, 최장현 뉴욕현지법인장, 밸류라인의 하워드 브레처 대표, 제이슨 와이즈버그 부사장 등 양 사의 주요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밸류라인의 리서치 서비스 도입은 글로벌 투자 플랫폼 확장 전략의 첫 사례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보다 전문화, 현지화된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 밸류라인 리서치 서비스는 워렌버핏, 찰리 멩거 등 유명 가치투자자와 미국 내 대형투자기관들이 구독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박미경 기자